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 2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638호 1994년 12월 6일(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 급인가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	김영덕
편집장	이현재
외대신문사	9962-7128, 961-4151
외대학보	9961-4152, 961-4183(FAX)
학술지	9959-6574, 0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보현면 용인리, 신동	
인쇄인	김상영

서울 제29대 총학생회 선거 하용갑·정성철 조 당선

61.04% 높은 투표율 보여

2천72표로 59.32% 지지얻어

서울캠퍼스 95년도 제29대 총학생회 선거 당선자로 '살맛나는 외대, 함께되는 총학생회'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하용갑(경제·행정 4)·정성철(법·인문학 4) 조가 당선됐다. 지난 11월 30일(수)부터 이틀동안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는 제1인원 6천5백41명중 3천4백93명이 투표해 작년 50.3%의 투표율에 비해 10%이상이 높은 61.04%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중 기호 2번 하용갑·정성철 조는 2천72표를 얻어 59.32%의 지지율을 보이며 1천8백59표를 얻은 기호 1번 손일문(사상·영어 3)·김재진(사상·한국어 4) 조를 2백13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 날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하용갑 군은 '현재 선거의 모습이 정세대의 정이었다면 다가오는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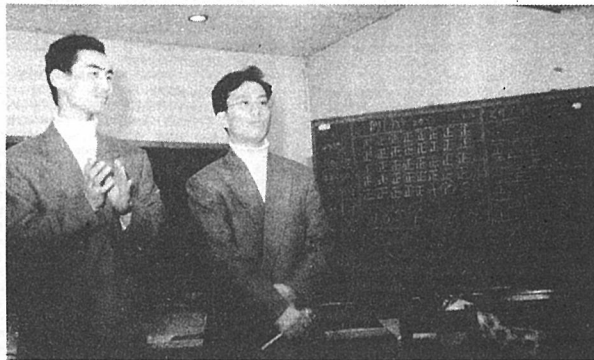
년은 서로 단결된 모습으로 맞이해야 한다'라며 '선거에 열심히 하던 모습으로 내년 1년을 보낸다면 외대 발전은 꼭 이뤄진다'라고 학생들에게 내년을 맞이 할 자세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부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정성철 군은 '내년 외대를 책임지고 1년동안 열심히 하겠다'라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각 단과대 및 과학생회의 투표율을 살펴보면 각각 양측의 후보자가 속해있는 사법대와 정책과학대가 각각 82.4%, 74.8%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서양어대가 56%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과학생회 또한 양측 후보자가 속한 한국어교육학과 행정학과가 각각 88%, 81.5%의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다.

<김인국 기자>



보리매공원에서 집회를 마친 2천여명의 농민·학생·시민이 국회외사당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61.04%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이번 선거는 59.32%의 지지율을 얻은 기호2번 하용갑·정성철 조가 당선됐다.

UR 비준반대

대규모 농민집회 열려

수매가·수매량 인상과 UR비준반대 외치며 거리행진

민자당과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우부파이라운드 비준을 가결시키기로 방점을 찍은 가운데 지난 29일(화), 대규모 농민집회가 있었다.

이날 열린 '쌀 생산비 보장과 세계무역기구 비준반대 94년 전국 농민대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어민후보자중앙위원회의 등 전국 11개 농민단체 소속 농민과 시민, 학생을 포함 2만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수매가 동결, 수매량 30만톤 감축방정 철회와 △수매가 8.1% 인상 및 1천 2백만톤 추가수매,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비준강행중지와 협상정지에대한 부분적 수정, △WTO에 대응한 농업대책 완비, 당리당락을 초월한 여·야 각 정당의 농

민지원의 수용 등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보리매공원을 출발해 국회의사당까지 거리행진을 하려 했으나 전경경찰 1백 27개 중대 1만5천여명이 국회의사당 진출을 막아 여의도 광장까지진행전을 벌인후 자진 해산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 농민은 "UR협정을 주도한 미국조차 UR협정중 자국의 이익에 위배되는 내용은 UR이행법안을 제정하여 대비하고 있는데 당국은 누구 총이라고 천하대평인지 모르겠다"며 수매기간임에도 서울까지 운리와 시위하는 이유를 밝혔다.

시위대는 전경들의 저지로 국회의사당 진출이 불가능해지자 잠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윤정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을 "우리

들의 투쟁은 끝났것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UR비준거부의지를 보였다. 한편, 같은날 우리농업지킴이법 국민운동본부는 기독교 백주년기념관에 기자회견을 갖고 UR비준이전에 자국민을 보호하는 UR이행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UR비준 방침을 강행할것으로 보고 계속적인 대정부 투쟁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열 예정이다.

오는 10일(토)에는 민주당과 12·12군사반란지소를 위한 범국민대회위원회의 주최로 '12·12군사반란지소추구와 UR이행특별제정법추구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오후 2시부터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현 기자>



사라진 교육이념

▲1896년 프랑스 대학법 이후 민주주의 이념은 전세계로 퍼져 나갔다. 이제 민주주의는 지역할 수 없는 정치체제의 기본 패러다임이 되어 자본주의 국가간 사회주의 국가간 민주주의란 명함을 갖지 않은 나라는 없다. 그 나라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지, 아니한 간에.

▲작게는 한 조직에서부터 크게는 국가까지 그것들은 모두 지향하고픈 것이 있고 그것은 이념으로 표출된다. 민주주의란 이념은 옳고 그르다는 가치판단의 개념을 떠난 것으로서 20C 모든 이데올로기의 하드웨어로 자리잡고 많은 나라가 그것을 전권이념으로 삼았다. 민주주의의 사상하에 살고 있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들의 국가가 그것을 전권이념으로 삼았으므로, 당연히 조직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곳이고 더 나아가 학교, 직장, 가족 등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 민주화된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 즉 국가의 이념과 집행이 이율배반적이면 사회 구성원들은 괴리감을 느끼고 그 사회에 대해 염증을 느끼게 된다.

▲국가란 거시적 시각을 좁혀 들여다보면 곳곳으로 쪼개져 있다.

대학의 교육이념을 보면 그 이념의 근원은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만큼 대학은 민주교육을 표방하고 그것을 화해로 삼고 있는 것이다. 대학이 민주교육을 최고 가치로 삼았다면 그 교육이념 아래 생활하는 대학인들은 당연히 그런 교육을 받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서울 모교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교장이 한 반을 지정한 내일은 7시에 등교하라고 입방적으로 지시했고 다음날 늦은 학생들은 교장에 의해 부자별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이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게 교장은 회학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다. 시제간에는 명령과 복종의 군대식 교육만이 있을뿐이다. 일체의 토론이란 없다. 많은 중고등학교들이 대학은 다름것이라고 생각한다.

▲외대의 교육이념은 어떻게 시작한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사상에 입각하여 학생 각 개인의 개성창달과 지도적 인격을 도야한다'...

미칠진 학생회관에 화재가 났다. 원인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다. 그런데 화재당일 학생회관에는 학교당국의 공고문이 나붙었다. '밤 10시 이후엔 학생회관 출입을 금한다'라는, 학교당국과 학생회 간엔 일체의 토론도 없었다. 토론이 없으므로 문제해결의 대안이 나올리 없다. 명명만 있다. 민주주의라는 교육이념의 집행이 아니다. 외대의 교육이념과 교육이 이율배반되는 순간이다.

<이승호>

<중간 인사>

오늘자로 94년도 2학기 신문발간을 마쳤다.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며 삶의 여러 순간에서 만났던 모든 이들의 얼굴이 때마다 침 내리는 첫눈과 함께 떠오른다.

첫 눈이 오려는 것을 알리기도 하려는 듯,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95년도 신년호로 여려분과 새해 첫 발을 함께 하겠습니다.

< 편집자 >

지·면·안·내

- 3면
양평 총학생회 평가 4면
- 2. 다저전 안보문제 대응과 우리의 대응 5면
- 4. 도서전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 특담 6면
- 용인법조 선결과 과감의 조화 8면
- 특제강 건설 반대운동들 벌이고 있는 물진들 찾아 9면
- 통대생·모현의 지역운동 전망 10면
- 연구입적 원리의 내용과 발전 의의

장년외대를 일구는 사람들

투투는

외대만의 색깔을 채워나갑니다



자극에 감동하여~
답변 바가지 없이 3인 1군~
학원 자조회를 외치며
외대의 색깔을 채워나갑니다
바로 UNIQUE & BEST입니다.

외 대 학 보

학내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즈음하여

11월 23일 새벽 4시경 발생한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화재는 많은 물질 피해는 물론 학내구성원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였음.

그간 학내에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빈번히 벌어져 왔고, 특히 그중에는 학생들의 생명마저도 위태롭게했던 사례들이 적지 않았음.

학내의 안전관리 문제를 이제 더이상 방치할 경우 보다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학내의 모든 시설과 외대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원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함.

- 아 래 -

○ 1994년 11월 28일부로 학내 모든 시설의 이용은 22:00까지로 한다.

단, 도서관 열람실은 예외로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학교의 시설물을 22:00이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994. 11. 25

총 장

□동북아 안보지도가 변하고 있다②

각국 다른 출발점에서 '다자안보체제' 접근중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다자안보 논의의 매개고리이자 우리의 임무

동북아 안보지도가 변하고 있다

1. 다자간 안보체제 제기배경과
전직상황
2. 다자간 안보체제 내용과
우리의 대응

'전환기'에 논의되는 안보대화

사람이 살아가는데 크게 세번의 기회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옛말이 그 자체로 전진인기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자신의 생을 좌우하는 계기가 주어졌을 때 이러한 계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이다. 이렇게 자신의 선택이 생의 길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전환기'라고 한다.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해소되고 북-미 3단계회담이 국적으로 타결되면서 동북아에 새로운 안보대화에 대한 논의들이 일고 있는 바로 지금이 우리 민족에게 전환기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안보 대화 즉, 다자간 안보대화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운전에 따라 민족사의 새장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안보체제와 안보기구가 형성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한다면 우리 민족의 통일도 가능할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안보체제와 안보기구가 형성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한다면 우리 민족의 통일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외세 강대국의 일방적인 이해관계 조율로써 안보대화가 구성된다면 새로운 질서 속에서 국제적 합의하에 한반도의 분단은 영속화 될 것이다.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외세 강대국의 일방적인 이해관계 조율로써 안보대화가 구성된다면 새로운 질서 속에서 국제적 합의하에 한반도의 분단은 영속화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 민족의 전환기를 마련해 주는 매개를 역할을 할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대화'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는 구체적인 논의의 상태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계기가 되고 주변 강국들은 자신의 이해에 맞는 다자간 대화의 상틀을 구성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작업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의 방향으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방향을 판독해 보는 것이 옳다. 그러자 할 것이다.

다자간 안보체제의 성격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체제에 대한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일방적 성격 등을 앞의 글에서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에 다자간 안보대화의 성격과 우리 민족과의 관련성을 주로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다자간 안보대화의 성격은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화체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다자간 안보대화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각국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다. 다자간 안보체제에 대한 논의는 멀리 코르바초프의 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5년 7월 브라티스라바에서, 88년 9월 크리스티안스타트에서 코르바초프는 새로운 구동맹정책을 발표하였다. 주내용은 "소련의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정치적, 경제적 방법에 의존하고, 이데올로기적 고려들은 말외하는 것" 이

다. 이러한 그의 정책은 91년 4월 '신아태정책'을 발표하며 '동북아협력지대' 설치로 이어졌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게 자주성을 추구하며 미국의 영향력에 서 벗어나게 하고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주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코르바초프의 정책은 그가 실각한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는 한쪽 눈만 아니라 두 눈을 모두 유럽에서 아시아로 돌려야 한다'는 러시아 코지코프 외상의 말에서 그 정책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의도에, 일방적인 대미 영향력에서 벗어나 동북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일본도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91년 7월

안보회의제 구성을 모색하면서도 기존에 미국을 축으로한 쌍무적 동맹관계와 쌍무적 협조관계를 가장 중시하는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변국의 흐름에 대해 남한정부 부는 88년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6자회담, 동북아시아 평화회의를 제창하였고 지난해 7월 한승주 외무장관은 동북아시아 외무장관회의에서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이 발족하는데 찬성하였다. 북한 정부 또한 지난해 7월 다자간 안보대화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는 현실의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서 이러한 안보 협의가 급속하게 강화되지는 않을 것

러시아, 동북아에서 영향력 확대

일본, 경제력에 맞는 정치·군사 대국화

중국, 군사적 긴장 제로로 동북아 안정

미국, 영향력 하락 막고 군비통제 효율화

북한, 미국과 군사 긴장 해소·외교적 고립 극복

등의 이해관계를 제각기 가지고 있다.

아세안 확대 외무장관 회의의 틀 안에서 정치, 안보문제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의 개최를 주장하고 89년 '아·태 지역 협력회의'를 창설하여 동북아에 참여하자는 미아자와 수상, '미아자와 독트린' 등은 이러한 일본의 정책을 대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동북아에서 포괄적인 다자안보포럼의 반대이다. 1992년 6월 미 국무부 리처드 차관보는 러시아가 주장하는 포괄적 다자간 안보포럼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안보포럼은 특정 한 문제가 아닌 동북아 안보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 문제라는 포럼이다. 주로는 특정 한 문제와 관련한 안전성 문제를 선호하였다. 91년 9월 베이커는 2+4 방식의 한반도 안보문제에 관련한 한일 포럼을 제안하였다. 미국이 이렇게 포괄적 안보회의를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미국이 동북아에서 유지해 온 쌍무적 동맹 관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동시에 그것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감춰져 있다는 점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미국의 주도적 참여가 보장되는 제한된 아시아

이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일본은 2차대전 이후의 명예에서 벗어나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군사 대국화를 위해 안보회의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 또한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보와 군사적 긴장의 제어를 통한 안정 유지를 위해 이에 동의하고 있으며, 미국은 새로운 질서 수립에서 영향력의 하락을 막고 군비통제를 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도 북한대로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외교적 고립을 극복하며,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자간 안보회의에 적극참여를 보이고 있다. 한미도 동북아 다자간 안보회의에는 완전한 찬성보다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회의에 상충하면서 공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동북아 다자간 안보회의가 단순히 군사적 긴장과 전쟁, 갈등을 예방하며 협력하는 기능만 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군비축소·평화보장체제를 구축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후자라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은 평화협정 체결과 안보포럼의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다.

동북아 새 안보체제와 평화협정 체결 문제

10월 중순의 역사적인 북·미 합의문을 보면 '서로간의 관심사항이 충족되면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이룬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군사대결을 해소하고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정상화를 위한 영향력을 높이는 방법에서 관계를 정상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8자회담을 결구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결구적 변동을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핵문제의 8자회담을 제안하며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 했다고 일본은 북·미합의 이후 조일수교를 추진하며 6자 안보포럼을 제안하는 등 이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던 중국은 리쑤창 총리의 방한 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고 있다.

즉 다자간 안보체제라는 논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매개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영향력 정도, 한반도 평화체제 성격에 의해 다자간 안보체제의 성격이 규정될 것이다. 절대적인 군사대결이 종식되어 평화와 협력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과 아울러 각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이 논의가 좌우될 경우 군비통제에 의한 현상유지를 호를 가능성이 많다.

다자안보포럼에 대한 우리의 입장

동북아가 냉전의 마지막 지대로 남아 있다기에 이제 북·미 합의로 오히려 냉전체제의 해체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다. 현재 냉전의 해체작업은 두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냉전의 정전으로 인한 한반도의 휴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다른 한쪽으로는 왜해진 냉전시대 군사불평등을 새로운 안보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이 두가지 문제를 하나로 결합시켜 해결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을 통해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포럼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평화협정 체결에서 당사자 지위를 갖고 있는 미국의 유리한 입지를 이용해서 동북아 안보포럼을 미국의 주도하에 구성해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동북아에서 안보포럼이 형성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미국이 의도하는 해결방식은 결코 바람직한 방

향이 아니다. 우리의 입장은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평화협정 체결과 안보포럼의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남·북·미 3자간의 한반도 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물론 이를 위해서 통일정책의 적극적 개입과 입법이 필요하다) 체결되며 주변 강국의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다자간 안보포럼은 동북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에서 특정 문제에 한정된 포럼이 아니라 포괄적인 안전보장 협의체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군축과 불가침, 그리고 정치적 분쟁의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동북아 안전보장에 해당한다. 또한 이것은 전통적 동맹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여야 한다. 한미일 3자 군사동맹과 같은 새로운 군사불평등에 기초한 안전보장체제가 아니라 각국이 대등한 지위로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포럼을 구성해야 한다. 이럴 때만 다자간 안보포럼이 새로운 패권주의의 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미국의 쌍무적 군사동맹과 한미일 3자 동맹에 기초한 안보포럼이 있다면 그것은 러시아, 중국에게 위협으로 되어 새로운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안보포럼의 시기에 관한 문제인데, 선 평화협정 체결후 안보포럼이 형성되는 것이 타당하다. 동북아에서 한반도는 현재 분단된 각자의 주체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포럼이 구체화 될 경우 그것은 현상유지 차원에서 안보문제를 다룰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반도 분단을 고착시키는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선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평화보장체제가 수립되면 남북 북의 동지향적 평화체제 상태에서 안보포럼에 참여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분단극복에 유리하다.

'전환기'의 임무

우리는 전환기에 서 있다. 오랜 냉전체제가 종지부를 찍고 새시대를 수립하기 위한 도쇠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신질서는 아직 규정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세력의 이해와 힘관계에 따라 새롭게 정립되는 과정이다. 이 전환기에 우리는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보장 체제를 이루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동북아에 항구적 평화를 구축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한 임무를 감내해 버린다면 현재의 호호전진도 강대국에 의한 한반도 현상유지와 갈등의 장제화로 일단락 되고 말 것이다.

최 종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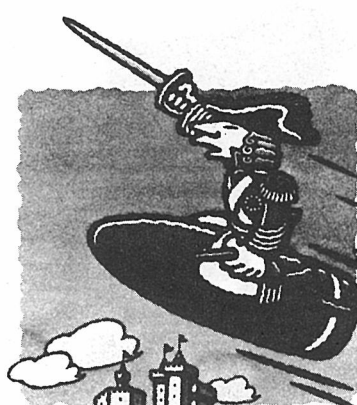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권인법
자주통일위원회 국원〉

서울빠빠.이5.

남자의 꿈!

"그 때, 내가 얼른 포탄을 잡아냈다.
그리고 성 안을 살살이 살펴본 다음,
포탄을 번개같이 잡아내고 돌아와
적군의 상황을 전했단거야! 하하하!"

-부작
허풍이 남자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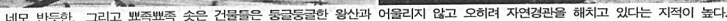
자유롭게 이동하며 통신하는 남자의 꿈-
서울이동통신이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꿈이 없다면
그리고 자유로운 상상력이 없다면 인류의 진보는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며 통신하고자 한 남자의
위대한 상상력에 서울이동통신은 박수를 보냅니다.
과거에는 꿈만 같았던 이야기를 현실로 만드는 기업,
서울이동통신-
서울이동통신은 총 매출액의 18%를 과감히
연구개발에 투자함으로써 디지털 TRS, 무선 데이터,
PCS 등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시대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이동통신 지하공관서비스 실시
서울이동통신은 수도권 주요지역(경기도, 충청남도)을
실시간으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추가서비스로
완벽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동통신

생활시평 - 기계와 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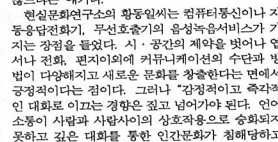
후생복지관 건설시 기존 건물들과의 조화 고려 필요

도왔게 고쳐해야 할 것이다. <문과사>

지난 여름방학 용인캠퍼스에서 있었던 민족지주
학교에 강사로 왔던 생활문화연구소의 이사 연성수

의사소통 수단의 다양화, 새로운 문화창출
 즉흥적인 발언, 비문법적인 표현등 언어혼란

어와 맞춤법에 어긋나는 말들도 갈수록 늘어난다'며 '현행 맞춤법을 무시하고 말과 글의 일치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언어생활의 혼돈을 지적했다.



편리함 이면에는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통화 속에서 자칫하면 개인화되고 즉흥적인 일회성으로 타락하기 쉬운 함정이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

-소설 '나의 벼' 중에서
〈문화부〉

수많은 선배님들의 외국어 배움터였던
「과거」의 시사영어학원은
새모습, 새시설로 새롭게 태어난
「오늘」의 시사영어학원을 뛰어넘어
21세기의 도전에 동참하는 당신의
「미래」의 시사영어학원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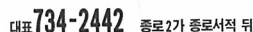
TOEIC
TOEFL L·C
AFKNS News & Drama 시청만
이디어 HEARING
TIME: 한국관련기사만
영자문
영어회화 1인 1민
WRITING SEMIN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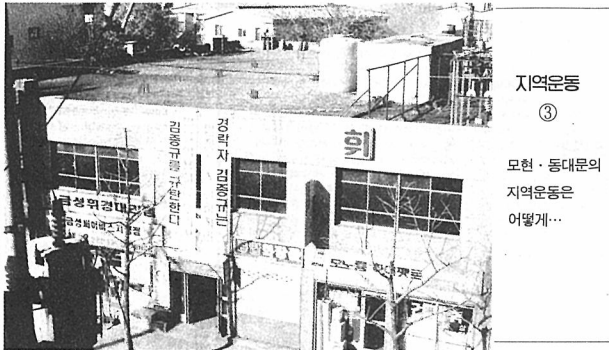
영어문법·독해·회화
일본어 능동시합(라반
일본회화
리아미어(독해·회화

TOEFL 7위수준
Korea Herald사실
VOCAB 22000
기초 VOCAB
성문종합영어 기본영어
MAN TO MAN7기본영어

TOEFL 600
GRE GMAT
M-A ENGLISH
대체원칙학반
통역대학원진문반

주요명사





지역운동 ③

모현·동대문의 지역운동은 어떻게...

모현

생활적으로 광주·성남등 주변도시에서 계속 학생·주민 하나되어 모현발전 일궈야

행정 구역상 경기도 용인군에 속해있는 모현. 본교 용인캠퍼스가 자리잡고 있는 모현의 상황은 아직도 열악한 실정이다. 지역의 개발문제를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직접입구는 것이 지역운동이라고 할 때 모현 발전의 열쇠는 바로 이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근거하지 않은 도시계획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건물들이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토박이들이 음식점을 하고 있는 모현의 대다수 주민들은 새로운 건물로 인해 도리어 피해를 보고있다. 주민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자연환경에 오고 가는

편안함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해 줄 것이라는 점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모현의 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모현에도 '모현지역 발전협의회'가 있지만 어느지역의 발전협의회와 같이 땅값을 올리거나 이익의 유지를 위한 모인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주민들의 주민연대체로 부터 모현의 발전이 시작되었다고 모현을 생활권으로 본 본교의 노력도 결실한 실정이다. 대학측의 부재는 학생들에게나 주민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이 틀림없다. 대학은 학문적 기능 이외에도 그 지역의 문화생활을 선도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관망객들이 그 손발등을 의지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웃고 있다'라고 말한다. 과연 이러한 모현의 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모현에도 '모현지역 발전협의회'가 있지만 어느지역의 발전협의회와 같이 땅값을 올리거나 이익의 유지를 위한 모인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주민들의 주민연대체로 부터 모현의 발전이 시작되었다고 모현을 생활권으로 본 본교의 노력도 결실한 실정이다. 대학측의 부재는 학생들에게나 주민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이 틀림없다. 대학은 학문적 기능 이외에도 그 지역의 문화생활을 선도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동현 기자>

동대문

개발낙후로 지역운동 활성화 잠재 주민 70% 저소득층, 매춘등으로 생계유지

청량리, 답십리, 제기동, 이문동 등의 동대문지역은 서울 시내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낙후된 지역이다. 통계에 따르면 주민의 70%가 저소득층이고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다. 동대문지역의 주민들이 이 지역의 정치·행정적 주민이 되기 위한 지역운동의 최전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동대문지역은 청량리 재개발지역의 철저한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청량리시장 등 타 지역에 비해 유난히 많은 재래시 시장의 분리가 떨어져 있고 있다. 또 매춘지역의 대다수가 좁히는 청량리 588, 상인구와 저소득층 주민, 매춘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들, 이 지역 주민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계층이 대다수인 것이다.

주민들의 사회·정치적 소외가 심화되면서 아직까지 이 지역에서 이뤄질 지역운동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한 '동대문지역 주민연대'라는 주민연대체로 부터 모현의 발전이 시작되었다고 모현을 생활권으로 본 본교의 노력도 결실한 실정이다. 대학측의 부재는 학생들에게나 주민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이 틀림없다. 대학은 학문적 기능 이외에도 그 지역의 문화생활을 선도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생을 위한 강령이다. 주민들을 상대로 한 부패없는 운동을 시작으로 통일적 실천운동과 8.15 광복절 전후에 청량리역 광장에서 '통일대장'을 마련해 5백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열리기도 했다고 한다. 동대문지역 주민의 특성상 지역운동의 불을 붙이기는 힘들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에서 일상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고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지기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 이 지역 운동단체들의 한목소리이다. 동대문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서울시립대나 경희대, 그리고 의대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김민욱 기자>



시론

미의회에서 통과한 'UR이행법안'은 'WTO가입 비준 동의'가 아니다.

미국 의회는 12월2일자로 UR이행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그런데 미국의 비준동의 내용은 'UR이행법안'이 아니라 'WTO'에 비준동의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의 UR이행법안의 내용은 미국이 지난 3월 GATT에 제출한 개방이행계획서(C.S) 및 지난 4월15일 미국에서 가트 회원국 각료들이 최종 합의한 UR 협정문과는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법이 UR·WTO제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적혀 있다. 미국의 개방이행계획서에 의하면, 모든 농산물의 개방과속을 내년 1월 1일부터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UR이행법안에서는 품목에 따라 4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개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개방이행계획서'의 내용은 절대 수정 불가능하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사실임을 실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와 국회의 'UR이행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미국처럼 '국내법 우선'을 조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를 위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예컨대 미국이 14개 품목에 걸쳐 개방이행계획서의 내용을 수정하면 우리도 지난해 12월15일 잘못 협상했던 품목들의 개방조건을 UR협정문에 명시한 기본조건에 시정할 수 있는 현실적 합성력을 갖게 된다. 새로 제정할 우리의 UR이행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스미트 유입원칙(EU)의 UR이행법에 상응한 조치 △UR·WTO에 가입을 위한 국내법적 △남북한 간의 거래를 민족 내부 간 거래로 선언하는 내용 △갈등된 개방조건에 대한 수정을 구제하여야 한다. UR비준 문제에서 있어서 우리국민과 이번만은 달리할 차이를 떠나 국가주권을 지키고 국익을 살리는 차원에서 UR비준안을 신중히 다뤄주기를 바라면서 촉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정부와 외부통일위에 상정된 WTO가입비준동의의 명칭부터 내용을 'UR·WTO 제에 대한 우리나라 'UR이행법'의 주요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제안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WTO가입은 UR협상의 일부 결과이며, UR협정은 가트 규약을 부분적으로 고친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UR협정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비준동의를 결의해야 하지만 단순히 WTO가입여부를 비준해서는 안된다. 이런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고 UR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다면 경제주권이 훼손되고 농민생존권은 위협받을 수 있다. 또, 미국의 선진국과 생명·환경생태계 및 국토개발은 커다란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장원석

<우리농업지킴이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단국대교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탐방- '해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반핵운동 본부'를 다녀오서

핵발전소 착륙장치없는 비행기



지난 1일(목) 전국반핵운동본부에서 '핵 발전소가 폭발할 경우 우리가 우리 자신이 당할 수도 있는 상황' 행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핵을 선택하느냐, 대대 에너지 개발을 선택하느냐'는 핵발전소의 선택이다'라고 지적한 지난 1일(목) '해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반핵운동본부(이하 반핵본부)'는 핵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행위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핵을 선택하느냐, 대대 에너지 개발을 선택하느냐'는 핵발전소의 선택이다'라고 지적한 지난 1일(목) '해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반핵운동본부(이하 반핵본부)'는 핵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행위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핵을 선택하느냐, 대대 에너지 개발을 선택하느냐'는 핵발전소의 선택이다'라고 지적한 지난 1일(목) '해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반핵운동본부(이하 반핵본부)'는 핵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행위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연내핵폐기장 선정결정에 충돌 예상 미 핵폐기장 절반이 방사능 유출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문유미 간사는 "핵폐기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핵발전소는 '착륙장치 없는 비행기'이다"라며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풍력이나 태양열 등을 이용해 효율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에너지원의 경우, 미국은 저준위 폐기물 처리장 30여 곳을 방사능 누출로 폐쇄되었는데, 독일은 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1973년 폐쇄한 후 저준위 폐기물을 핵발전소 입지선에서 지정하고 있다. 또한, 방사능의 피해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50년전, 대. 군사부 부지를 활용해 핵폐기장을 건설한 영국은 기존 처분장이 포화상태에 이를 예정이지만 제2 처분장을 짓지 못하고 있다.

<박수정 기자>

Skiing

올겨울에 꼭 해야 할 2가지 중 한가지는 HP로 장만하고, 둘이 스키장에도 가고! 포춘카드 선정 No.1 컴퓨터 전문회사인 HP 데스크톱과 노트북을 50만대 판매 기념으로 HP가 제1회 'HP스키타운'을 개최합니다. HP 데스크톱이나 HP 노트북과 PC를 구입하고 고가 용량카드를 구매하면, 우편을 통해 스키장 2인 초대권을 드립니다. 또 데스크톱이나 PC를 구입하시면 모든 분께 통합 소프트웨어 '미러로'를 기본으로 드립니다. 용어를 마음껏 즐기고 컴퓨터와 프랜차이즈를 즐기시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하세요.

HP데스크톱 50만대 판매돌파기념 제1회 'HP스키타운' 오픈!

올겨울에 꼭 해야 할 2가지 중 한가지는 HP로 장만하고, 둘이 스키장에도 가고! 포춘카드 선정 No.1 컴퓨터 전문회사인 HP 데스크톱과 노트북을 50만대 판매 기념으로 HP가 제1회 'HP스키타운'을 개최합니다. HP 데스크톱이나 HP 노트북과 PC를 구입하고 고가 용량카드를 구매하면, 우편을 통해 스키장 2인 초대권을 드립니다. 또 데스크톱이나 PC를 구입하시면 모든 분께 통합 소프트웨어 '미러로'를 기본으로 드립니다. 용어를 마음껏 즐기고 컴퓨터와 프랜차이즈를 즐기시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하세요.

HP가 1,000명을 스키장에 초대합니다.

순위	이름	성명	소속
1	김민욱	김민욱	한양대
2	김민욱	김민욱	한양대
3	김민욱	김민욱	한양대
4	김민욱	김민욱	한양대
5	김민욱	김민욱	한양대
6	김민욱	김민욱	한양대
7	김민욱	김민욱	한양대
8	김민욱	김민욱	한양대
9	김민욱	김민욱	한양대
10	김민욱	김민욱	한양대

문민은 날치기

○...국회도 고속화시대인지 내년도 예산안을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하듯 순식간에 날치기 해버리고 명분은 '법치국가'에서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박 명 석
 <영어 57, 단국대 영문과 교수>

를 상당수 확보하여 1,2학년 교양 영어 전부를 실용 영어로 대체하고 있다. 본지, 특히 따라서의 외국에 가서 살아야 하는 정도 영어·문화학을 익히고 돌아와만 졸업을 할 수 있는 방안 중, 여러 가지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안적·창조적 계획으로 편성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적인 땅덩어리가 좁고 빈전을 많고 풍운 자리가 없는 부경 국제 사회에서는 외국어를 익히기만한 책, 경제, 교육, 문화 각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국제 감각을 갖춘 외국인을 많이 배워 하는 일이 외국에 세계화 시대를 맞아 더욱 더 박자를 갖춘 일이다. 설의 정제될 수 있는 secondary and 고등 인간의 2차적 교육(secondary needs, 즉 경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계화된 인재를 요구한다. 작년말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에 온 나라를 뒤흔들 때나 지금이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본부와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관련위원회 회원국 우리나라 사람이 없는 사건도 없었다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세계화를 지향하는 언어·문화적으로 다문화된 융합된 전문 인력이 양적으로도 최소한 필요한 것이다. 질적인 면에서도 어찌 많았다는 현실을 자식하면서 여기에 우리 교묘의 역할을 앞으로 기대하여 본다.

부의장이 외장석에 앉지도 못하고 기자석에서 가결시켜 놓고도 큰소리 뽐내는 것은 아직도 자신들이 문민이라 생각해서 일까?

여쭈든 다리하나 제대로 구리 못하는 부실정부가 이래서 뭘 땀, 위는 날치기로 도둑질하 시 해내나 아직도 자신들이 문민이라 할 수 있을런지.

○...한겨울 일도 많았고 지
끈 일도 많았던 올해도 역사
으로 저물어가고 새삼 한 해
되돌아보게 되는 이때, 홀산
에게 따뜻한 기대를 걸게하
사람들이 있나고
내년 외대를 이끌어 나가
될 학생 및 일꾼들이 선출된 것
새 일꾼들이여! 그대들
행보에는 외대 1년 3천의 간
한 믿음의 항상 깃들여 있다
결 명심하시라!

우 이장희, 이균성, 사범대의 경우 김형필(한교과), 상경대는 송 일(무역학과),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제1교수연구동
의 연내 완공과 함께 더욱더 왕성한 교수
들의 연구활동을 바라면서 이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1년에 1편(1백%)을 기준으로 하
는 하한선은 상향조정돼야 한다. 1년에 1
편은 너무 적으며 오히려 자급이 안되고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multi-story brick building with a curved facade. The building has many windows, some of which are dark, suggesting they might be boarded up or the interior is dark. The building is situated in an urban environment, with other buildings visible in the background. The photograph is taken from a low angle, looking up at the building.

크로니클자 알아본즉, 정
조직개편안 중 행정조직 개
으로 단숨에 부처 2개가 없어
고 차관자리 3개 실·국장
개 그리고 과장급이하 자리
수백개가 한꺼번에 없어진단
이에 한 민초 한미다

○...낮에는 직원. 밤에는
범.
학생회관 화재이후 외대
원들에게는 부업이 하나 생
다는데.

외대의 통금시간인 오후
시 이후에 도서관을 제외한
교건물안에 남아있는 학생들
'게도'하기위해 건물을 순찰
는 것이 바로 그것. 총장남
이 부업을 맡기고 호주로 가
다.

총장님, '제도'만 하려고
지 미시고 학교에 널려있는
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
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워요 바버대워(?)

.....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 위원장,
법·법학 4>

해당학계의 전문지에 실리는 것을 최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사진은 오는 12월 내
된 서울캠퍼스 도서관 뒤편 교수연구동

